제8차 여성정책포럼

여성회관의 기능 정립 방안

◎ 일시: 2002년 9월 11일 (수) 15:00-17:30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5층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회관의 기능 정립 방안**"을 주제로 2002년도 「**제8차 여성정책포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들 가운데 지역여성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기여해 온 여성회관은 이제 그 목적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질적 발전을 모색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 교양 함양, 여가 활용,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기능 수행은 한편으로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혼돈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평생교육기관 및 복지기관들과의 수행기능 중복 현상은 여성회관의 고유한 사명과 기능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여성회관이 수행해 온 다양한 기능을 점검하여 그 발전가능성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여성회관의 직업교육훈련기능, 성평등의식 및 시민의식교육기능, 그리고 복지기능 수행의 가능성과 제한점을 중심으로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9월

한국여성개발원장 장 하 진

행사일정

15:00~15:10 인사말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장)
15:10~16:00 주제발제
사회: 박성정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연구위원)

주제발제:

발제 Ⅰ.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 방안
발제 Ⅱ. 정현경(수원여성회 교육부장)
: 여성회관의 성평등의식 및 시민의식교육 기능 강화방안
발제 Ⅲ. 신용주(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부교수)
: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강화방안

16:00~16:40 토론
정숙영(경기도 여성정책과 과장)
성수열(부천 문화재단 이사)
임상희(김포시 여성회관장)
이한순(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16:40~17:00 휴식(음료 및 다과)

17:00~17:30 자유토론
모든 참가자

17:30 폐회

목 차

1.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 방안 :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5
나영선(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여성회관의 성평등의식 및 시민의식교육 기능 강화 방안/ 23
정현경(수원여성회 교육부장)

3.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강화 방안 : 가족센터 모형으로의 전환모색/ 41
신용주(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 방안

: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나 영 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목 차 -

Ⅰ. 서 론 / 7

Ⅱ. 여성회관의 발전과정과 기능,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 / 8

Ⅲ.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현황과 문제점 / 10

Ⅳ.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17

Ⅰ. 서 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확대는 21세기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적 능력이 중시되고 서비스산업이 비중이 커짐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과거에 비해 좀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고학력화와 경력단절의 완화로 핵심부문에서 여성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은 여성인력 활용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게다가 출산률 저하와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면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대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는 사회 및 경제발전과 관계없이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아울러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여성 인적자원개발이 지체될 경우 여성의 지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 및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회교육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여성부가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면서 전국 46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그 중심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몇몇 여성회관의 기능변화 및 구조적 개편을 통해 현재 사회교육 중심체제에서 그동안 덜 강조되었던 여성회관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물론 여성회관은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역여성의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증진과 건전 가정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민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사회교육기관 또는 종합교육복지기관으로서의 발전전망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과연 '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여성회관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가' 그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여성회관의 기능 정립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여성회관의 발전과정 및 주요기능, 그리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책의 강조점 변화 등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지역과 구인수요와 여성의 사회교육 또는 직업교육 수요와의 불일치 문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비전문성, 취업연계기능의 미약, 사업추진체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제4장에서는 현황과 문제점 분석에 기

초하여 여성회관이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직업교육 강화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벤치마킹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Ⅱ. 여성회관의 발전과정과 기능,[1]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

1. 여성회관의 발전과정과 기능

정부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관 또는 회관을 설립한 것은 1952년 1월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설립된 '경상남도 부녀사업관'이 최초이며, 1959년 11월 서울특별시에서 '시립부녀사업관'을 설치하면서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초에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등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각 시·도에 설치되었다. 그 후 시·도·군·구의 조례에 의거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2001년 7월 전국에 9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1조)에서는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이용시설과 여성사회교육시설로 규정하여 복지와 교육의 기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의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가지고 복지기능을 갖는 사업과 교육기능을 갖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복지사업으로서 상담사업, 자원활동센터 사업, 취업안내사업, 보육사업 등이 있으며, 교육 사업으로는 기술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타사업으로서 지역여성단체를 위한 시설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장 사업 등을 들 수 있고, 최근 여성회관에 새로이 개발된 사업으로 복지기능에 속하는 일시보호쉼터가 있다.

그러나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 등 다양하게 불리는 기관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각각 분리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또는 복합서비스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례상의 차이가 다양한 명칭의 여성회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차별화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단지 중점기능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김태홍, 1999). 내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회관을 어떤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최초에 설치되었을 때부터 우리 나라 만의 독특한 지역의 성인 여성교육기관으로 외국에서는 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2](채창균, 외, 2001).

---

1) 김성경, 1998; 김태홍, 1999; 채창균 외, 2001; 박성정, 2001, 나영선 외, 2002

2)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성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일하는 부인의 집'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 일하는 부인의 집의 설립과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일본 노동성(현재 후생노동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일

2. 최근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하면서 여성부가 신설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2-2005)을 수립하면서 여성 인적자원개발을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영역에 삽입하여 체계적인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여성부는 금년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중시해야 할 정책의제로서 '지식기반 시대에 걸맞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획기적 기틀 마련'을 강조하며, 정책과제로서 여성근로자,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동안 여성진출이 미진하였던 분야(특히 여성과학기술인력 부문)로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여성부, 2002).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여성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 등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인적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지역실정과 여건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예: 경기도), 2002년 현재, 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정책은, 첫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여성능력개발로서, 여성정보화능력 향상 등 지식기반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여성가장 실업대책 훈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들은 여성에게 최대한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생활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소관기관인 여성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회교육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든지, 직업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여성회관의 '여성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 봄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하는 부인의 집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설립비용의 약 70%수준(대부분 건축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사업형태는 첫째, 강습회, 세미나, 전시, 행사 등의 회합, 둘째, 상담 및 지도, 셋째, 탁아, 넷째, 자주그룹 활동의 지원이다. 사업내용은 ①기능, 자격습득 강좌 등의 직업에 관한 사업 ② 직장과 가정의 조화에 관한 사업(강습회) ③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사업 ④여성근로자의 생활전반에 관한 사업(강습회) ⑤취미, 스포츠 등 교양에 관한 사업 ⑥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탁아, 강습회) ⑦상담업무 ⑧기업방문, 도서대출 등이다. 전문적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1-2회, 3-4시간 정도의 강습을 제공한다(어수봉, 외, 2000, pp. 138-139).

Ⅲ.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현황과 문제점

1. 여성의 직업교육수요와 구인수요의 불일치

대부분 여성회관의 교육수강생들은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높지만 당장의 취업이 절실하지는 않으며, 취업현실의 높은 벽을 인식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구인구직 현장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001년도 경기도 워크넷 구인구직·취업동향 분석에 의하면, 남성에 대한 구인이 20만명에 달하지만 여성에 대한 구인은 8만명 수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남성 구직자와 여성 구직자의 수는 각각 18만명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사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수강생들과 비교하면 여성회관은 훨씬 덜 취업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표1, 표2). 최근 경기도 여성회관의 교육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유사 사회교육기관(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수강생들의 인식과 비교하였다.

<표 1> 현재 교육받는 기관의 성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전체
여성직업훈련기관	25 (6.0)	98 (55.4)	11 (15.9)	134 (20.3)
교양문화취미 교육기관	197 (47.6)	14 (7.9)	6 (8.7)	217 (32.9)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32 (7.7)	7 (4.0)	19 (27.5)	58 (8.8)
여성의식 교육기관	9 (2.2)	6 (3.4)	1 (1.4)	16 (2.4)
여성종합교육 복지기관	148 (35.7)	52 (29.4)	28 (40.6)	228 (34.5)
기타	3 (0.7)	0 (0.0)	4 (5.8)	7 (1.1)
소계	414 (100.0)	177 (100.0)	69 (100.0)	660 (100.0)

여성회관 수강자들은 교양문화취미교육기관으로(47.6%)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55.4%)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종합교육복지기관(34.5%) 또는 교양문화취미교육기관으로(32.9%) 인식하는 수강생이 가장 많다(표1).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이유로는 여성회관은 여가선용이나 취미생활이 압도적으로 많았고(52.3%)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이 많았고(합하여 66.7%),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취업과(27.5%) 여가선용(26.1%)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2).

<표 2>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전체
자기사업, 창업	35 (8.4)	32 (17.8)	13 (18.8)	80 (12.0)
취업	19 (4.6)	60 (33.3)	19 (27.5)	98 (14.7)
자격증 취득	67 (16.1)	28 (15.6)	3 (4.3)	98 (14.7)
여가선용, 취미생활	218 (52.3)	24 (13.3)	18 (26.1)	260 (39.0)
기술을 배워 드려고	53 (12.7)	20 (11.1)	9 (13.0)	82 (12.3)
기타	25 (6.0)	16 (8.9)	7 (10.1)	48 (7.2)
소계	417 (100.0)	180 (100.0)	69 (100.0)	666 (100.0)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IT 교육을 제외하고는 음식서비스, 여가활동, 가정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여성회관의 인기 있는 교육프로그램

기관명	1순위	2순위	3순위
경기북부	IT전문기술교육	컴퓨터 기초교육	한식조리과
안산시	제과제빵 자격증	한식조리사 자격증	도배
성남시	현대의상반	생활요리	영어
부천시	요가	요리교실	미술교실
안양시 만안	챠밍댄스	요가	가정요리
김포시	컴퓨터	영어	중국어
고양시	한식요리자격증	중국어	댄스스포츠
평택시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컴퓨터
안성시	요리	요가	양재
파주시	공인중개사반	컴맹탈출반	한식조리반
포천군	한식조리사	스포츠댄스	컴퓨터
연천군	생활요리	한식조리사	스포츠댄스
양평군	상차림	요가	스포츠댄스

그러나 구인이 많은(인력수요가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산모도우미, 텔레마케터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종사했던 단순직종이거나 한식조리 등 음식서비스 관련 직종이 대부분으로 나타나서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구인이 많은 직종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표4).

<표 4> 여성회관의 구인이 많은(인력수요가 많은) 교육프로그램

기관명	1순위	2순위	3순위
경기북부	미용(헤어)	한식조리	컴퓨터 활용
안산시	도배	꽃집창업	텔레마케팅
성남시	도배반	컴퓨터	홈패션
부천시	미용	가사도우미	간병
안양시 만안	-	-	-
김포시	-	-	-
고양시	-	-	-
평택시	-	-	-
안성시	-	-	-
파주시	한식조리반	미용	컴맹탈출반
포천군	한식조리	-	-
연천군	-	-	-
양평군	한식조리사자격증	컴퓨터자격증	-

이상과 같이, 여성회관의 수강생의 경우 여성회관을 대부분 직업기술교육의 장으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회관이 설립된 법적 기반이나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포괄적인 조례방침과는 다르게, 수강생들은 여성회관을 교양문화취미교육 기관이나 여성종합교육복지기관으로 인식하고 여성들이 교양문화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정현주 외, 2001), 수강생들은 고졸이상의 30~40대 가정주부가 대부분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취미 및 교양을 넓히거나 가정경제, 법률상식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원하였다.

2.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 부족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미용, 요리 의상, 공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종사했던 직종이다, 컴퓨터 직종도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초급 수

준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위한 것이므로 취업과의 연계는 어렵다. 또한 임금노동자로 취업하기 보다는 소규모 자영업이나 부업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직종들이다.

<표 5>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구분	직업교육 프로그램명
미용관련	헤어미용, 미용자격증, 메이크업, 생활미용, 헤어디자인, 피부관리(사), 머리손질, 피부메이크업, 생활미용, 가정헤어디자이너, 자기연출
요리관련	생활요리, 제과제빵, 조리전문가(자격증), 한식조리(이론, 실기), 양식조리(이론, 실기), 반찬전문점, 조리전문출장, 일식조리사, 떼빡이바지, 가정요리, 한식조리사, 출장요리, 전통요리
의상관련	양재(옷)수선, 생활한복, 의류리폼, 현대의상, 수의제작, 전통한복, 한국의상
꽃꽂이 원예 관련	플라워디자인, 꽃가게 운영, 소자본 꽃집창업
공예, 자수관련	홈패션, 전통자수, 퀼트, 손뜨개, 매직칼라점토, 한지공예, 스텐실, 목공예, 봉제취업반, 생활도자기, 기계자수, 수(손)자수, 맥간공예, 생활공예, 종이접기, 귀금속공예, 표구/한지공예
컴퓨터 관련	컴퓨터(자격증), 워드자격, 컴퓨터 그래픽, 홈페이지 만들기, 실버컴, 활용능력자격증, 인터넷정보검색사, 엑셀파워포인트, 웹디자인, 인터넷
간호서비스직	간병인(호스피스), 간병 및 산후조리, 선물포장
디자인	생활염색디자인, 포장디자인
도배	도배(전문, 자격증)
건강관련	수지침, 발(건강)관리(사), 발반사요법, 경락발관리
아동지도 관련	글짓기독서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기타	커튼, 텔레마케터전문과정

자료: 채창균 외, 2001

금년도 경기지역 여성회관 조사에서도 향후 개설 계획이 있거나 개설을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직종들과 아주 다른 내용이 많았다(표6).

<표 6 > 여성회관의 향후 개설예정 교육프로그램

기관명	1순위	2순위	3순위
경기북부	창업강좌	전통매듭,전통소품	-
부천시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	규방공예	원예
안양시 만안	-	-	-
김포시	-	-	-
고양시	여성의식관련프로그램	부업관련 프로그램	-
평택시	간병인	산후조리	-
파주시	공인중개사문제풀이반	토익	-
포천군	사물놀이	-	-
연천군	중국어	에어로빅	-
양평군	발마사지	구슬공예	매직풍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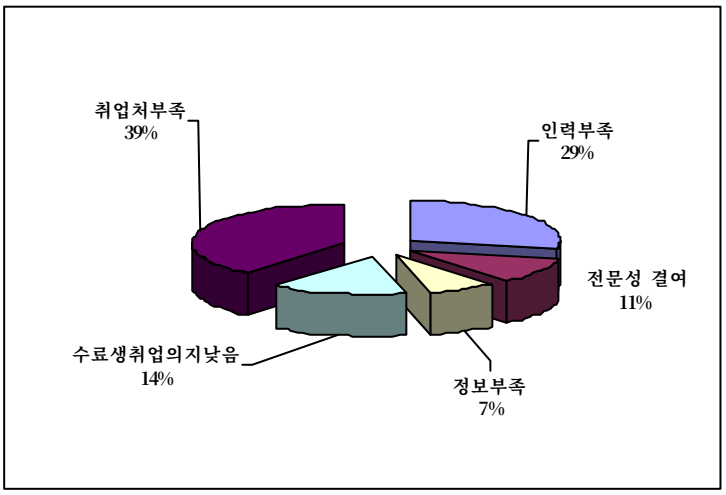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회관에서는 의식교육, 창업, 중국어 등 사회교육을 강화할 생각이므로 역시 취업 연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다(나영선 외, 2002).

대부분의 여성회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역노동시장의 여성 인력수요 보다는 교육생 등 지역사회여성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강생들의 높은 교육만족도에서 드러나듯이 교육실시 전후에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차기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설기관에 비해 비교적 질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유인요인이 되고 있다(정현주 외, 2002).

대부분의 여성회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담당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실시시의 애로사항으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취업처 발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90%이상 자체 개발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역내 유사기관들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타지역에 있는 동일기관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개발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이는 곧바로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교육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회관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강사를 충원하지만 낮은 강사료로 인한 강사충원 및 재교육 문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나타난다(채창균 외, 2001).

3. 교육수료후 취업과의 연계 미흡

여성회관의 경우, 수료예정자에 대한 취업지도가 별도로 실시되지 않는다. 약 30여개 기관 여성회관의 조사에서 응답기관의 1/4 정도만이 취업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회관이 직업기술교육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취업과의 연계문제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혹은 직업교육의 수준이나 내용이 초보적이어서 곧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정보 제공방식은 취업상담직원이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9.2%), 관련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정도이다(68.2%). 취업경로도 개인이 알아서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0.0%), 1/4정도의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취업상담 및 알선업무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관은 취업처가 절대로 부족하다는 점,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수료생의 취업의지가 낮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직업기술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업처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의 적극적인 구인정보 수집, 담당인력의 확충과 수료생의 취업의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채창균 외, 2001).



<그림 1> 여성회관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시 가장 큰 애로사항
자료: 채창균 외, 2001

4. 경기도 여성회관의 기관운영 사례[3]

(1) 중점 추진사업의 운영

첫째, 여성회관의 중점추진사업을 보면, 대부분 지역거주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수료후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유도하여 여성의 사회공적활동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둘째, 주요 타겟집단 아파트 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의 전업주부이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라 상가지역, 서민층 다수 거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여성의 직업기술교육 수요가 있다(수원, 안산, 안양동안, 성남 등) 셋째, 대부분 인근지역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 경쟁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다. 넷째, 공통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 전담인력의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천, 안양, 파주 등에서는 여성회관을 지역문화사업의 중심기관,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인다.

(2) 사업추진 체계의 문제점

첫째, 직업기술교육과 사회교육 중에 어떤 프로그램에 우위를 두는가 하는 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직업기술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기관은 사회교육과 봉사를 연계하는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안산, 부천, 안양 등). 도농지역은 사회교육수요만 있음(파주). 지역특성에 직업기술교육, 사회교육의 어디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약 20개소의 여성회관이 있으나 도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 기능, 운영실무자 교육, 운영매뉴얼 개발, 경기도 여성인력 수요조사의 실시 등을 담당할 헤드쿼터의 기능이 부재하다. 셋째,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관계에서 여성회관이 항상 우위에 있지는 않으며, 타 기관과의 협조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예: 안산은 여성회관 우세지역, 성남은 인력개발센터 우위지역, 부천은 협력지역임).

(3) 재정운영의 문제

2001년도 경기도 소재 여성회관의 총 세입과 총 세출의 구성비를 분석하였다.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무원이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성회관 12개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세입이 61,575천원~802,285천원에 이른다. 세입이 적은 곳은 도농지역이며, 전국 여성회관 평균예산은 약 515,146천원 수준이다. 교육수강료가 세입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53% ~89% 수준이다. 시설사용료와 보육료 등의 수입은 극히 적은 편이다. 총세출을 보면, 인건비에서 1

3) 경기도에 소재하는 여성회관 사례에 국한하여 분석된 내용이므로 전국 여성회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나영선 외, 2002)

3%~40% 수준이며, 사업비는 3%~88%, 운영비는 115~79%, 그러나 금년에 개관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인건비는 30%, 사업비는 10%, 운영비가 48% 수준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여성회관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1998년도에는 인건비 50%, 사업비 30% 수준이었음, 김성경, 1998), 이와 같은 사업비 배분 속에서 많은 시설 및 재정투자를 요하는 직업교육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Ⅳ.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

1. 지역의 여성 구인수요에 부응하는 직종개발[4]

직업교육의 최종목표가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에 있는 만큼 지역의 여성구인수요에 부응하는 직종개발이 중요하다.

2001년도 경기도 여성 구인·구직·취업동향을 세부직종별로 충족률과 취업률의 수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여성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유형은 '① 구인구직적합형'과 '③ 구인초과형'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인초과형은 일자리는 많은데 구직자가 희소한 경우로서 앞으로 여성 직업교육훈련 수요가 발생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여성구인·구직 적합형은 기업의 입장에서 구인인력이 잘 채워지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업이 잘되는 직종이 이에 속한다. '기계정비 및 조립종사자', '음식료품 관련 기능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구인 및 구직인원이 매우 적으며, 전통적인 생산직으로서 3D직종에 속한다. 둘째, 여성구직초과형은 구직자는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잘 안되는 경우이다, 만화가, 여행안내원, 번역 및 통역사 직종 등 그동안 여성인력의 공급이 많았던 직종들로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힘든 직종들이다. 특히 컴퓨터관련전문가는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의 비율이 10배가 넘고 있다. 셋째, 여성구인초과형으로서 구인자는 많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충족률은 낮은 편이며 고객관리, 판매, 영업, 회계 및 경리 등 그동안 미혼의 저연령층 여성들이 주로 취업했던 사무직이다. 일

4) 여성 구인구직수요는 2001년도 구인구직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에 한해 분석하였다.

자리는 많은데 구직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직종이다. 넷째, 여성구인·구직 과소형 직종이다. 구인자도 적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직종들이 구인구직 과소형 직종에 속한다. 일자리도 적고 여성구직자도 많아서 취업이 힘든 직종들이다.

이상과 같이 구인구직 적합형과 구인초과형 직종을 통해 경기여성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을 추출하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대다수 종사하였던, 섬유, 의복관련 제조업의 생산직으로 들 수 있으며, 또한 기존에 미혼 저연령층이 종사했던 경리, 사무 종사자, 영업관련직종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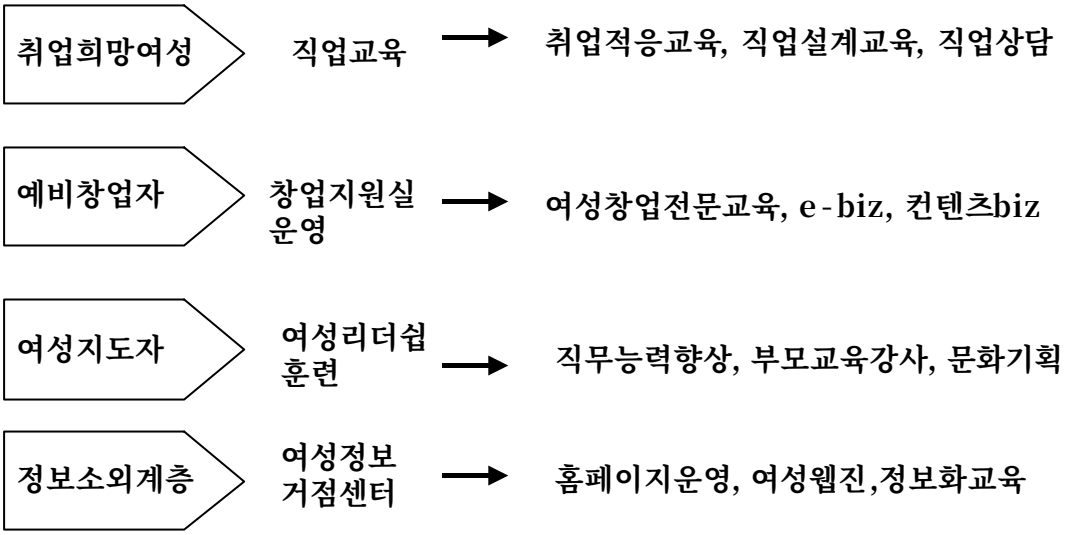
2.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확충 및 교육담당자의 전문화

(1) 타겟집단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노동시장에 부합되면서도 여성회관 자체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에서 여성회관의 수강생 인기직종, 구인직종 및 개설희망 직종을 검토한 결과, 여성들의 취업희망직종과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그런 사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애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수강생 조사를 통한 인기직종의 개설, 타 기관 신규프로그램의 모방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적용방식 및 타기관의 역할분담에 따라 지역별, 기관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서는 이론강의식보다는 교육생의 참여를 높이는 현장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인여성의 흥미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신규 직업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여성회관의 노력을 촉진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기관에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을 통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직업교육은 중앙정부의 투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여성인력수요가 정보 및 컴퓨터 관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비생산직의 정보 및 컴퓨터 직종의 훈련공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다음의 <그림2>에서는 여성전문직업교육을 지향하는 경기능력개발센터의 타겟집단별 접근방식을 소개하였다.



<그림 2> 경기능력개발센터의 타겟집단별 접근방식

(2) 교육담당자의 전문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문제는 교육담당자의 전문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회관의 운영주체가 대부분 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02년도 여성회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근무자가 26.1%나 되고, 3년 미만의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교육담당자를 육성하는 방안,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기능의 강화

대부분의 조사에서 분석되었듯이 수강생들은 노동시장에서 유망한 직종, 적성과 부합성, 수료후 취업가능성 등에 대한 별다른 상담이나 정보없이 수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의 낮은 취업의지 때문에 실효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직업교육참여로 이끄는 교육훈련 상담과 함께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의식을 배양케 하는 취업알선 상담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회관 직업상담의 전문성 제고이다. 현재 상담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된 점은 전담 상담원의 배치, 전문인력의 충원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겸직 배치 또는 자원봉사

자 중심의 운영은 직업상담 업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 축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30-40대의 기혼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혼 중년층여성을 전문상담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상담 영역의 확대이다. 현재 직업알선 상담 만이 아닌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제, 육아, 보육문제 등 여성특수적 상황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족, 직장, 자녀양육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상담업무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안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다. 취업알선의 전문성 측면에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여성회관으로서는 직업상담 뿐만 아니라 취업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특수적 직업정보의 개발과 가공, 고용안정센터, 워크넷 구인구직망과 같은 공공직업안정체제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정보의 가공에 있어서 성별 정보를 산출하고 여성특수적 상황인 연령, 시간대, 근로제공형태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여성노동시장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회관의 취업알선 업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취업처 확보'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직업안정망과의 업무협조체제의 구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여성회관은 취업보다는 자영이나 부업,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시간제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 시간제근로직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창업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4. 여성회관의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첫째, 성인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조직은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성인 직업교육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정보화, 여성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헤드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여성회관의 신규 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노동시장 정보의 분석, 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의 인력수요 및 여성의 직업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직업교육에 비교우위가 있는 기관을 평가하여 개편한다.

셋째,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한 여성회관의 재정배분구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축소하고 사업비 배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타 복지서비스 및 사회교육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넷째, 인력운영에 있어서 최소한 직업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 여성회관장과 프로그램 책임자는 외부전문가로 유입한다(아웃소싱). 이 때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실시 전문인력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독립성이 유지된다.

5 여성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향상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의 준비

현재 디지털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여성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실업, 잠재실업 상태의 여성근로자 들이다. 장기적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파트타임, 재택근무, 파견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므로 현재 전업주부형의 여성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라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을 여성회관의 새로운 목표집단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의 21세기 직업재단에서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사업을 대행하면서 전국 47개소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여성의 능력발휘촉진사업, 직업과 가정의 양립지원사업, 단시간노동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주요 사업은 직업교육실시 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노동상담, 세미나, 재취직희망등록자 사업, 강습회 등 다양하다.[5] 여성능력발휘 촉진을 위한 21세기 직업재단의 각 지방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여성회관이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김성경(1998). 여성회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1999). 경기도 여성인력수요의 실태와 대책방안. 경기도.
김태홍 · 김노마(1999). 여성 직업훈련체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나영선(1999). 여성을 위한 효율적 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오사카 사무소의 2002년 7월 현재 계획된 세미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트타임 노동상담회, 개정 육아 · 가족간호 휴직법 세미나, 여성을 위한 캐리어업 세미나, 여성활용을 위한 중간관리직 세미나, Re · Be 워크 세미나 기초강좌, 재택워커교류 세미나, 재취직희망 등록자 지원 사업, 재택업무 기초력 세미나, 여성매니저를 위한 그레이드 업 · 공장 등이다. 니이가타사무소에서는 파트타임근로자 직업교실, 보육서포터 양성강좌, 파트타임 노동상담회, 여성을 위한 커리어업 세미나, 여성사원활성화를 위한 중간관리직 세미나, 신입단시간 고용관리자 연수의 개최, 니가타현 업종별 사용자(인쇄업) 회의 등을 실시한다. 사이타마 사무소에서는 파트타임 노동가이던스와 상담회, 여성사원활성화 세미나, 파트타임 고용관리 개선 세미나, 보육서포터 양성강좌, 재취직 준비 세미나 등을 실시한다.

나영선(2002). 여성직업교육훈련 및 사회교육기관의 실태분석과 기능재정립 방안 연구. 경기도 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서.
박성정(2002). 여성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어수봉 외(2000).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체제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채창균·고혜원(2001).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부
정현주·김길자·정현경(2001). 경기도여성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기개발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2001).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일본 21세기 직업재단 홈페이지(http://www.jiwe.or.jp/

여성회관의 성평등의식 및 시민의식 교육 기능 강화방안

정 현 경
(수원여성회 교육부장)

- 목 차 -

1. 프로그램의 목적/26
2.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과 특성/27
3. 프로그램의 구성/28
4. 프로그램 예시/29
5. 프로그램의 과제(한계)/36
6.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37

들어가면서

얼마 전, 경기도 여성회관의 의뢰로 필자를 포함하여 3명의 연구진이 "경기도 여성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정현주외 2인 (2001),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여성회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여성회측의 의뢰로 수행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경기도내 17개 여성회관의 교육 담당자와 교육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의식과 프로그램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하였다

그중, 여성회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9.8%가 "교양 ,문화 취미 교육기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1.0%가 "여성을 위한 종합교육 복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이 13.6%,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2%였다

이 설문조사는 현재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한 한계는 있으나 많은 이들이 여성회관을 "무엇인가 배우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개인의 취미 ,교양교육, 기술교육에 편중되어있는 즉, 개인능력 향상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문화센터나 기술교육기관과의 차별성에서 별반 다름이 없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교육생들의 주요 참가 동기가 "강사료가 싸서(40.2%)"라고 답한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보다는 저렴한 수강료에 의의를 두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여성회관의 현재의 모습은 개인의 교양, 문화, 취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저가의 여성교육기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이다.

지금까지 학계와 여성운동단체에서는 한국의 성인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교양증진과 취미활동에 크게 치우치고있으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이 희소하다는 지적을 해왔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필수불가별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필자 또한 여성회관의 의의는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여성이용시설이라는데 있다고 보며 여성회관은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는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개발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구조의 변화 즉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또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적합하면서도 공공성을 토대로 한 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이 성평등 교육과, 다양한 생활문화 ,시민의식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민간 교육기관이나 , 기술교육 위주의 기관에서는 진행하기어려운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치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의식 계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동인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공공성을 토대로 한 여성회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기획 담당하는 교육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회관 교육 담당자는 성평등적이며 전문가적 마인드를 갖추고 전문성계발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 설문조사결과,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도 아니고 해당 지역의 근무연수도 적은 상태에서 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57.8%가 보수 교육을 한번도 받은 적 이 없다고 응답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앞서갈 수 없듯이,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것을 담당하고 기획하는 교육 담당자들의 관점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성평등적 기능과 시민의식 기능강화에 앞서 이들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 의식속에서 여성회관의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의 요구에 의해 개발한 내용이다.

1. 프로그램의 목적

첫째, 여성회관 교육담당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여성회관 교육 담당자들이 성인 사회교육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기획시 전문적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고령화 , 정보화 ,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넷째, 교육 참가자들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이 실천으로 순환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생활문화 전반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2.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과 특성

1) 프로그램의 기본 관점은 성인지적 관점과 사회 공공성을 두축을 토대로 개발 되었다.
2) 교육 방법은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의식과 상황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문제를 분석해 낼 수 있는 참여형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3) 교육프로그램의 마지막단계에는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조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프로그램 내용은 경기도 여성회관의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었다.
5) 프로그램의 형식은 교육 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매뉴얼형의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6) 프로그램의 실시대상은 여성이 주요 대상이지만 고령자, 청소년, 남성,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각 지역의 여성회관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하며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결과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3. 프로그램의 구성

영역	교육프로그램	대상
성평등교육	성인지적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담당자
	양성평등 상담전문가 과정	상담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역사아카데미	일반 여성
	또 하나의 기쁨 아빠	남성(아버지)
	에니메이션을 통해본 성역할	청소년
가족문화 교육	세대차의 벽을 넘어서	삼세대
	부모 미디어 교육	부모
	가족이 함께 생각하는 고령자 문제	가족또는 개인
	육아기 부부를 위한 육아 100배 즐기기	20-30대 부부
	중년 부부를 위한 유유자적 세미나	40대부부
	노년 준비 부부를 위한 자유로운 노년생활	50대후반 부부또는 개인
생활교육	삶의 경제학	일반 여성
	여성에게 힘이 되는 법	일반여성
시민 의식교육	세계시민의식 교육	일반 시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기표현 워크샵	장애인과 비장애인
	요리를 통해본 북한 이해 교육	일반 여성
	여성정치지도력교육 및 훈련	일반여성
지역 전문가 양성교육	시니어 지역 교수양성 교육	50대 후반
	소그룹 조직리더 양성교육	소그룹리더
	평화가이드 양성교육	경기지역 여성
	향토문화 생활가이드 양성교육	지역거주 5년이상 여성
여성친화 복지형 취업교육	일시탁아모 양성교육	보육교사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여성
	노인도우미 양성교육	일반 여성
	학습길라잡이 양성교육	일반여성

4. 프로그램 예시

1) 성평등의식영역

프로그램명: 양성평등 상담 전문가 과정

1) 대상: 상담가

2) 목적;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로보고 상담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전문상담가를 양성한다

3) 유의사항;
(1) 상담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을 둔다.
(2) 자신들의 젠더체크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한다.

4) 기대효과
(1) 피상담자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관점을 가짐으로써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 친화적인 문제해결법으로 접근하여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프로그램 예시

회	주제	내용	방법	시간(분)
1	내안의 젠더체크	자신안에 내재되어진 젠더 의식을 체크	체크지활용	120
2	왜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가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에 대하여	강의	120
3	여성문제 바로보기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강의 및 토의	120
4	기존의 심리학의 상담법을 넘어서	기존의 심리학의 상담법을 넘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상담기법 익히기	강의 및 실습	120
5	여성관련 상담의 실제편1-부부,연인등 커플문제	다양한 커플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강의 그룹토의	120
6	여성관련 상담의 실제(1) -자녀문제	자녀문제을 성인지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강의 그룹토의	120
7	여성관련 상담의 실제(2) - 한부모	한부보 가정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해보기	강의 그룹토의	120
8	성관련상담의 실제(성정체성,성희롱 성정체성)	성에 대한 문제를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재해석하기	강의 그룹 토의	120
9	자원활용	사회적 연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자원 활용법	강의 그룹토의	120
10	양성평등 상담가들의 자조모임 결성 및 수료식	정보교류와 연구를 위해 자조모임결성	그룹 토의	120

<u>프로그램명: 또하나의 기쁨 아빠</u>

1) 대상:남성(아버지)

2) 목적

가족,지역과의 관계가 약한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속에서 자기 역할을 파악하고 생활자로서의 자기역할을 높히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넓힌다.

3) 유의 사항

(1) 학습내용은 일상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아버지끼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그룹별로 공동작업을 많이 한다.

(3) 지도자, 강사는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재료, 기구 등의 준비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 최종회에 결의표명을 문장화시키고 1년 후에 본인에게 보내주고 본인의 결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기대효과
(1)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을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이 강사가 되고 실습을 통한 공동작업을 해봄으로써 지역과의 관계를 넓힌다.
(3)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과의 교류와 생활에 있어서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예시

회	주제	내용	방법	시간(분)
1	남자의 패션과 의생활자립	코디네이트에서 옷손질까지	실습	120
2	가전제품 및 간단한 부품	손질함. 간단한 제품수리	실습	120
3	전수: 깨끗한 방	창문 닦기, 집안꾸미기 나무 바닥을 손질함...등	실습	120
4	남자도 참여하는 환경사랑-쓰레기 처리법	쓰레기 분별방법, 신문을 묶는 방법	실습	120
5	식생활의 자립 -칼국수 만들기	요리의 즐거움을 누리기위한 기법익히기-요리방법, 식칼 사용법, 설거지 방법	실습	120
6	내가 전수할 수 있는 일	참가자들이 잘할수있는 장기를 전수하는 내용결정하기	토의	120
7	전수할까요 나의 장기 1	6회에서 결정된 것 중 하나를 실시	실습	120
8	가족과 주말을 -집에서 하는 목공	톱 켜는 방법, 대패질 하는 방법, 못 박는 방법 등 ~목욕탕용 의자 등 만들기.	실습	120
9				120
10	남성에게도 문화생활을1 -도자기 공예 I	찻잔 만들기	실습	120

회	주제	내용	방법	시간(분)
11	남성에게도 문화생활을2 -음악즐기기	가볍게 즐길수 있는 생활음악감상 및 설명	실습	120
12	남성에게도 문화생활을3 -가벼운 댄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트레이칭, 째즈,등 춤의 즐거움 맛보기	실습	120
13	남성에게도 문화생활을4 -차문화 즐기기	다양한 차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차만들기	실습	120
14	남성에게도 문화생활을5 -생활공예 즐기기	쉽게 접근하며 실용적인 생활공예 배우기;구슬공예 십자수, 퀼트등	실습	120
15	주체적 주거자로써의 인테리어 참여하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테리어법	실습	120
16	아버지의 행정 이용법 1	육아, 취직, 간호, 여가이용법 등 지역주민으로서 아버지가 행정혜택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실습	120
17	아버지의 행정 이용법 Ⅱ			120
18	전수할까요 나의 장기 2	6회에서 결정된 것 중 하나를 실시	실습	120
19	아버지의 매력 Ⅰ	미래사회에 적합한 이상형 아버지상과 아버지들이 모아서 가능한 일에 대해 토의.	워크숍	120
20	아버지의 매력 Ⅱ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의논.	실습	120
21	아버지의 매력 Ⅲ	의논한 것을 밖으로 나가서 실행해본다.	토의	120
22	결의 ~ 이런 아버지가 될 것이다! ~	결의표명과 의견발표	토의	120

2) 가족 문화영역

프로그램명: 중년부부를 위한 유유자적 세미나

1) 대상: 40-50대 중년부부

2) 목적

- 고령화시대에 있어 중년부부의 가족과 지역과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남녀평등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 복지와 좋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중년부부의 여유로운 노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의사항

(1)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들간의 교류를 도모한다.
(2) 고령기를 앞두고 있는 선배나 현장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현실체험을 기초로 문제를 생각한다.
(3) 생각이나 기대를 쓰는 카드를 사용하여 자기 의식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부부가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날짜·시간을 설정한다.
(5) 요리 실습 때 역할 분담 방법을 배려한다.
(6)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해주는 강사를 고른다.

4) 기대효과

(1) 직장밖에 모르던 남성이 가족이나 지역에 관계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된다.
(2) 부부가 같이 참가하여 교류함으로써 향후 지역에서의 교류로 이어지도록 한다.
(3) 이제까지의 자식중심의 부부 관계를 재검토하여 앞으로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를 준비한다.

5) 프로그램예시

회	주제	내용	방법	시간(분)
1	*참가자들간의 벽 허물기 *가족의 변화	*세미나에 대한 기대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카드에 쓴다. *직함·지위가 없는 자기소개 -자기 취미나 장기자랑, 삶에 대한 보람을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부부는 따로따로 앉는다). *출산률 저하, 고령화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하여 논의	자기소개 강의	120분
2	*빈둥지 시기는 자유와 자립의 기회	*자식들한테서 자립한 체험을 사례을 통해 들어본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인권(자기결정권)이나 자립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사례발표 그룹 토론	120분
3	어떻게 될까, 연금제도.	*고령사회가 심하게 되는 가운데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한 기초이해를 넓힌다. *연금제도와 더불어 다른 재테크 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강의 질의 응답	120분
4	부부가 같이 도전! 우리 집의 건강요리.	*식사 습관이 생활과 건강에 주는 영향을 배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리 실습을 통해 부부가 같이 집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체험한다.	강의 요리 실습	120분
5	평생 현역으로 활기 있는 생활! -자원활동의 즐거움-	*다양한 자원활동의 체험담을 통해 지역공동체적 삶에 대해 생각해본다. *직업(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룹토의를 통해 생각해보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카드에 써서 의견을 나눈다.	그룹 토의	120분

3) 시민 의식영역

프로그램명: 정치 지도력 교육 및 훈련

1) 대상: 일반여성

2) 목적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인 정치지도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의사항

(1) 딱딱해 질 수 있는 정치를 생활과 연결시켜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강사로 배정한다.

(2) 모델이 될만한 여성정치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 좋은 교육 효과를 가져온다. 단 선거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3) 의회방청이 가능한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프로그램기획을 해야한다.

4) 기대효과

(1)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는 생소한 정치를 삶의 정치로 인식하여 지방정치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도록 리더쉽을 키운다.

(2)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정책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개발해본다.

(3)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의회 방청을 통해 실제로 정치현장을 가까이에서 체험함으로서 거리감을 좁힌다.

5) 프로그램 예시

1단계: 여성정치지도력 키우기 교육

회	주제	내용	교육방법	시간(분)
1	올바른 정치지도력이란?	올바른 지도력과 지도자상에 대하여	강의 및 토의	90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화시대의 꽃인 주민자치와 여성의 역할	강의 및 토의	90
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책	정책 및 시책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강의	90
4	여성정치지도력 키우기	모델이 될만한 여성정치지도자의사례와 잠재되어져 있는 지도력 발굴	워크숍	90

2단계: 여성정치지도력 키우기 체험

회	주제	내용	방법	시간(분)
1	동네의제 만들기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의제 만들어보기	워크숍	120
2	지역의제 만들기	동네별 의제를 모아 지역의 의제 만들어보기	워크숍	120
3	의회방청 모니터링 방법	의회방청에 필요한 모니터링법을 배운다	강의	120
4	의회방청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모니터링 한다	현장 견학	120
5	모니터링 결과 모으기	모이터링 결과를 발표해보고 토의해본다	그룹토의	120
6	모의 의회	의원이라 가정하고 모의의회를 진행해본다	체험 학습	120

5. 프로그램의 과제 (한계)

1) 의식교육중심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주로 의식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명을 정할 때에도 카피라이터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의 강좌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려면 현재 유행하는 코드를 잘 읽고 파악하여 대상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의식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강사를 섭외할 때 공공적 마인드와 성인지적 마인드를 가진 자로 섭외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지역의 편차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도시중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도농 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지역 현실상 문화적 직업적 프로그램이 더 절실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지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욕구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다양한 교육 대상자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것인가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같은 영역이라도 다양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같은 의식교육프로그램이라도 연령과 성별 현실적 여건등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 본 프로그램은 크게 연령과 성별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나, 기관에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는 좀더 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구체적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여성회관 운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프로그램을 적용시킬까
사실 소프트웨어격인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드웨어격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현재 여성회관이 지니고있 는 여러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 조례상의 문제, 시설의 한계, 인력의 문제, 재원의 부족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교육담당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가장 많아 나온 과제였다.

다음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이다.

6.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1) 여성회관 담당자들간의 협의체 구성
정보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비교 검토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적절하고 개방된 시설 및 공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알맞는 공간과 시설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놀이방의 설비 장애인과 노인을 고려한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홍보도 자연스레 할 수 있다.

3) 유관 기관과의 연계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4) 지역NGO와의 파트너적 연계

지역내에는 그동안 전문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양한NGO들이 많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취지에 맞는 교육활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들과의 적극적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5) 연구 및 조사기능 강화

현재 여성회관에서 연구 및 조사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지역의 요구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 설치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여성회관의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적 전망을 제시할 수있다.

7)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

과거와는 달리 각기 각색의 교육 프로그램이 넘치는 사회이다 . 여성회관도 마케팅과 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 지역정보지, 대형 쇼핑센터, 은행등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8) 교육 정보제공의 기능 강화

단순히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와 길라잡이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상담사등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여 배치하는 작업도 하나의 방안이다.

9) 전문인력의 배치

위의 것들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디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우선적으로 여성회관의 존립의의를 인식하고 , 프로그램을 운영 할수 있는 성평등적인 마인드와 성인여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육전문 담당자의 양성과 배치가 절실하다.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강화방안 :

가족센터 모형으로의 전환모색

신 용 주

(동덕여자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목 차 -

Ⅰ. 서 론 / 41

Ⅱ.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수행 현황 및 문제점/43

Ⅲ.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강화방안-가족센터모형으로의 전환모색 / 44

Ⅳ. 결론 및 제언 /49

- 요 약 -

본고에서는 현재 교육기능과 복지기능이 모두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지역사회 가족복지서비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가족센터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여성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여성과 가족을 한 단위로 묶어 통합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센터의 설립을 통해 여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가족기능의 보완과 가족생활의 지원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여성회관은 가족센터로의 전환으로 영유아보육, 노인보호시설 및 일시 피난처의 운영 뿐 아니라 정보제공, 취업안내, 교육·상담실시,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서비스까지 전달할 수 있어 여성과 가족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족복지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이 확보되고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수준 높은 가족복지 서비스가 제공한다면, 여성복지와 더불어 남성,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우리나라의 여성회관은 그 설립취지나 기능수행에 있어서 타 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안순덕 외, 1985; 김혜란, 2002). 특히 최근 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센터, 여성인력센터, 일하는 여성의 집,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능과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이제 복지사회로의 도입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의 여성회관은 종전의 여성만을 주 대상으로 사회교육과 상담, 취업알선 또는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새롭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차별화 된 정체성을 확립할 때

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비롯한 유사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가족센터로 재조직, 재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은 물론 가족을 지원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부응하고 문제사정과 문제의 예방 및 해결까지 이르는 가족대상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여 지역사회주민의 가족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관이 빈곤계층, 모자가정,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반면, 여성회관은 가족센터로 전환하여 그 기능의 초점을 가족의 기능강화에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여성과 불가분의 관계인 가족생활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정책포럼의 다른 발표자들께서 여성회관의 교육이나 직업교육 기능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발표자는 복지기능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보건복지비전 2002(보건복지부, 2002)에서 제시된 시책을 고려할 때, 일반가족 및 저소득 또는 요 보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과 전달을 담당할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본다. 여성회관이 지역사회에서 가족복지지원 기관으로서의 중심으로 가족센터로 전환될 때, 전문화된 수요자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과는 달리 가족생활향상과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가족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 뿐 아니라 여러 실직자 집단의 취업을 장려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의 알선 및 취업보도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복지비전 2010에 부합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복지비전은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일련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의 보장으로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여성회관에서 탈바꿈할 지역사회의 가족센터는 누구나 집에서 편안히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취지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가족복지의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훈련, 상담 및 치료, 보육서비스 및 노인보호서비스 제공, 청소년 쉼터 운영, 의료, 주택, 여가 및 공적부조 수혜자격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센터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는 종합적 가족복지 센터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센터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위임(refer)하는 서비스로 나누어 그 체계가 세분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수행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여성회관의 역사는 1906년의 민간기관으로 출발한 것으로 기록되며, 공공기관으로는 1952년 부산에 설립된 '경상남도 부녀사업관'이 그 효시이다. 현재 전국에 총 78개의 여성회관이 있어 복지대상 여성인구 약 20만 7천명 당 1개소씩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란, 2002). 여성회관의 대부분은 광역시, 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며, 소수의 민간위탁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회관은 요 보호 여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여성종합기관으로 지역사회의 여성복지기관 또는 여성사회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행정주무부서는 여성복지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과가, 여성사회교육 관련 업무는 1998년 정무 제 2장관실에서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 실로 이관되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의 두 개 부서라 할 수 있다. 여성복지기능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경제력 증진, 지역여성복지, 긴급피난처 운영 등이 포함된다. 여성사회교육 기능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실시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광역시와 도(A와 B형)으로 분류되는 광역지방정부형의 기본 복지기능으로는 우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및 청소년 성 상담 등 상담 및 예방사업과 쉼터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원활동센터 개설, 직업안내, 보육서비스 제공, 기술 및 취미 교육 실시 등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중소도시형이나 군 지역형 여성회관 역시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기본 기능은 지역사회의 여성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복지기능을 중점으로 분석해보면 상담사업,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 취업안내사업, 보육사업 등이 주를 이루며, 일시보호시설인 쉼터가 전국 여성회관 5개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상담사업의 경우, 여성, 아동 상담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청주시 여성회관의 사례를 소개한 김혜란(2002)의 연구는 72%이상의 사업이 상담분야에 집중되어있어 교육기능(14%) 또는 취업알선이나 쉼터운영 등 복지기능(11.3%)

보다 훨씬 그 욕구가 큼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담사업 역시 복지기능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회관의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의의 복지 개념에는 교육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교육, 취미 또는 교양교육이 주를 이루는 여성회관의 사회교육 기능 역시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사회교육기능도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직업교육 및 자기개발 교육으로 연결되어 자립적 삶을 유도하도록 복지기능강화 방안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의 복지기능증진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여성회관의 복지기능 강화방안-가족센터모형으로의 전환모색

1) 여성회관에서 가족센터로

본 고는 여성복지 서비스의 지역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탐색에 그 목적을 두고있다. 여성회관의 발전방안으로 여성은 물론, 여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통합적 단위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서의 전환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여성회관의 복지기능수행 실태를 살펴 본 후, 가족센터로의 확대 및 개편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전문화된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회관의 조직은 서무계(관리계/총무계), 교육계(운영계), 상담실의 3개 부서 또는 이 중 두개 부서로 가동되고 있다(김혜란, 2002). 여성회관의 주요 업무가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기능으로 대별된다면 이중에서 복지기능의 핵심이 상담사업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신용주(1997)가 성북구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가정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대상 여성의 다수가 가족생활 향상이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가정상담이나 자녀양육관련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담서비스에 대한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2년도 여성복지시책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모자복지상담사업, 모자보호시설 운영, 모자 일시보호시

설 운영, 미혼모시설운영, 여성복지시설 직무능력향상 자체교육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생산적 복지를 국정이념으로 채택한 현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과 자립을 유도하는 중추역할의 수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여성회관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개방되어있는 가족센터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 설립취지에 더 부합된다고 본다. 가족센터의 이용으로 지역사회의 여성에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남성 등 모든 이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소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보다 사회통합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센터의 주요복지기능

여성회관에서 전환된 가족센터는 지역사회복지를 향상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80년대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증진을 목표로 빈곤계층, 모자가정,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본고에서 제안하는 가족센터의 경우 그 목표는 분명히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다. 따라서 주 대상이 가족과 가족구성원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가족대상서비스가 강조되어야할 이유는 근래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 반면, 적절한 가족복지사업은 매우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날로 취약해져 가는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절실하다 하겠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살펴보면, 가족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 및 가족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간략히 영국 가족센터의 기능을 요약하면, 우선 가족을 보존하고 아동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Pithouse, Lindsell and Cheung, 1998: 2). 바로 이 같은 이념이 필자가 본 고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족센터 설립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사회복지사업의 큰 분야가 아동·가족 및 성인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필자가 제안하는 가족센터의 사업범주에는 이 두 가지 분야가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가족센터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 데 우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open-access), 주로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위임받는(specialist referred)유형, 그리고 학령 전 보육센터(pre-school) 유형의 세 가지이다

(Pithouse, Lindsell and Cheung, 1998: 3). 우리나라의 가족센터 역시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혼합된 형태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차차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본 고에서는 전문화되기 이전의 복합적 기능의 가족센터를 구상한다. 지역사회의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게될 기본적인 가족복지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가족관계에 기초한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이영분 외,1998)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우선 부부관계를 지원하는 것과, 가족 특히 여성의 케어링(caring) 역할을 지원하는 것, 가족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 부모 - 자녀관계를 지원하는 것, 개인 및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지원하는 것, 개인 및 가족의 발달단계별 과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치료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등 크게 7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반가족과 요보호 가족 대상 프로그램, 예방적 차원과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가족복지 프로그램의 유형

가. 부부관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근래 늘고있는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특히 부부관계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나, 이혼이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부부에게 제공되는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다. 가족문제의 성격에 따라 각각 예방적, 치료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 평등한 결혼관계를 권장하고 부부간의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내용의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가족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가정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후속조치를 제공하고 임시 쉼터에 수용하거나 지역사회내의 다른 쉼터로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경찰, 의사, 복지사 등 전문인력지원체제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나. 가족의 케어링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족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아동이나 노인, 환자 및 장애자를 돌보아야 하는 케어링 역할은 대부분 여성에게 맡겨진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나,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경우 그 수발에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따라

서 가족의 케어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장 요구가 큰 영유아 보육, 플레이 그룹, 방과후 아동보호 서비스를 비롯한 치매노인주간보호 서비스 등 실천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용가능 시설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및 환자들을 필요할 때 돌보아 줄 수 있는 홈메이커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재가봉사도우미 은행도 전문화·활성화되어야한다. 가족복지프로그램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나 유급도우미의 체계적 훈련과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가족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은 함께 하는 운동이나 여행 여가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가족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곧 시행될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과도한 근로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추세와 건강추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가족센터는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설 수련관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밖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활동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여가,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라. 개인 및 가족의 발달단계별 과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이 있으며 이 과업의 성공적인 이행은 다음 단계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생아기에서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년기로 이행하며 성인기를 맞은 후에 노인이 되는 개별적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도 거쳐야할 발달단계와 과업이 있다(유영주, 1984).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과 교육을 하며 자녀를 결혼시킨 후 노년기를 맞아 은퇴와 죽음에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가족의 발달과업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하여 배우자와의 사별과 같은 삶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상담(bereavement counseling)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새롭게 부과되는 발달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비부부교육에서부터 출산교육,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거쳐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실직자 재취업 교육, 퇴직준비교육, 창업교육 및 치매노인 가족교육, 노년기의 재산관리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마. 부모 - 자녀관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바쁜 현대생활에서 부모 - 자녀관계는 자칫 대화부족과 대화기술 부족 등으로 소원해지기 쉬워 자녀들이 학교부적응, 일탈, 소외, 비행 등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녀가 건전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역할의 어려움은 자녀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 - 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한 부모 가족이 증가 및 재혼으로 인한 계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부모역할의 유형이나 부모 - 자녀 관계의 질과 내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다.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상담은 물론, 가족구성원과의 평등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대화법을 교육하는 PET(부모효율성 훈련), STEP(체계적 부모효율성 훈련),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등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재 아동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를 위해서도 부모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바. 전문가의 치료나 특별 조치가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 또는 약물남용 인구가 늘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 가장이나 가족구성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 그 가족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또 아내구타를 비롯한 가정폭력, 아동이나 도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방임 또는 유기의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 성폭력의 피해자 역시 커다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또는 학대·유기·방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지속적인 상담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들 가정에 가족치료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제공될 때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이든지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센터가 즉각 개입하여 바로 법적·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기 조치이후에 일시보호소등 피난처에 수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케이스를 송부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문가에게 치료를 의뢰하는 단계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여성회관의 가족센터로의 전환과 함께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항들을 가족센터가 가족상담과 치료, 교육훈련 제공, 쉼터 제공을 비롯하여 가족복지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성회관이 가족센터로 변화되어 지역사회 가족복지의 중심으로 뿌리내리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상당한 규모의 기초적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통해 여성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들이 가족센터로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설확충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족센터가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과 인력확보가 실현된다 해도 모든 프로그램을 가족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가족센터 및 부설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행·재정의 수준은 중산층 인구의 증가추세에 걸맞게 일정수준이상으로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신·증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수월성과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복지 서비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여성회관 기능의 가족센터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 경찰, 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간호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족센터의 많은 기능 중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의 기능은 센터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 훈련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타 기관의 위임 등의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일시적 피난처는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부설로 운영하며, 쉼터의 시설과 제공되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의 수준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 시설 등도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과 연계해 주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가족센터의 기능이 직접이용시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타 기관으로도 송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직접, 간접적인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때 가족센터는 명실공히 지역사회 가족복지의 중심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여성회관의 이원화된 행정 주무부처는 가족센터에 관하여는 일원화되어 보건복지부 여성복지 과 에서 총괄하는 형식으로 교육·상담·복지 등 모든 사업이 가족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실시되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과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센터의 신설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아동 상담소, 노인복지관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가족센터는 가족복지를 우선으로 하며 가족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 화되어야 하며, 타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가족센터가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가족상담에서부터 생산적 복지까지 실현 가능한 지역사회중심의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숙·최지희(2001).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직업교육훈련 발전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김혜란(2002). 지역공동체와 여성 - 여성회관의 기능 재정립, 한국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 발표집, pp.633-646.

김혜란, 장경섭(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 보고.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신용주(1997). 지역사회복지관에 관한 연구: 성북구 가정복지 프로그램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제2권. pp.47-71. 동덕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안순덕 외(1985).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양애경(1998).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구민회관 활용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영주(1984). 신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영분·양심영(1998).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제 3호, 온라인 자료.

2001년 여성발전센터 운영업무 지침, 서울특별시

Pithouse, A. Lindsell, S. and cheung, M.(1998). Family support and Family Centre Services. Aldershot: Ashgate.